

# 목포시, 여성 건강권·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 '앞장'

### 성평등가족부 '모두의 생리대' 공모 도 유일 선정...3억 확보·내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충족 제품 행정복지센터·다중이용시설 등 비치

목포시가 여성의 필수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보편적 여성 건강권 증진과 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생리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돼 약 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여성의 생리대를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위생용품으로 규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올해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목포시를 포

함한 전국 12개 지자체를 시범 지역으로 최종 낙점했다.

목포시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세부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주요 다중이용시설로, 시민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다.

보급되는 생리대와 지급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엄격히 충족한 안전한 제품으로, 성평

등가족부의 대량 조달 계약 방식을 통해 일괄 공급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 시설에는 대용량 적재는 물론 이용량 자동 집계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 자동형 지급기를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 선정의 이면에는 지역 정치권의 든든한 지원 사격도 큰 역할을 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정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전남에서는 목포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공공 시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든든한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완도군, 전국 첫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가동

### 바다 걷기·전문 치유 스테이 등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인구 유입 기대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장기 체류형 힐링 관광인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완도의 청정 바다와 숲, 섬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심신 회복을 돕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특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여름 성수기인 7·8월 제외하고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해양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코스는 ▲해양치유바다 걷기 ▲전문 치유 스테이 ▲바다놀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와 완도 투어를 결합해 완도 전역을 거대한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특징이다.

군은 장기 체류에 따른 참가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참가비를 최대 70%까지 파격 지원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시민들이 해조류 거품 테라피를 즐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혜택을 적용하면 1박2일 코스는 8만원, 5박6일 코스는 3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격 해양치유를 누릴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달간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장애 개선 등 긍정적인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확인되며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센터 개관 등으로 지난해 완도 방문객이 7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완도만의 특화된 청정 해양·기후 자원을 심분 활용해 스쳐가는 곳이 아닌 오래 머무르는 독보적인 치유 관광 모델을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무안군 "공유스튜디오 편하게 이용하세요"

### 영상·사진 촬영·교육·회의 가능

무안군은 14일 "일로읍 백련로 663에 위치한 무안군 공유스튜디오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 공유스튜디오는 영상·사진 촬영을 위

한 메인스튜디오와 호리존 스튜디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에 운영된다.

메인스튜디오는 LED 스크린과 크로마키 시설을 활용한 촬영이 가능하며, 촬영 장비는 직원이 직접 운영·지원해 이용자의 원활한 촬영을 돕는다.

호리존 스튜디오는 인물·제품 사진 촬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실은 회의와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뒤 이용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유스튜디오가 군민들의 영상·사진 촬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지난 5월 함평자연생태공원 입장객 수가 전년 동월대비 41.2% 증가했다. 사진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입구 전경.

〈함평군 제공〉

# 야외 무료개방 함평자연생태공원, 입장객 '쑹쑹'

### 지난달 전체 방문객 전년비 30%

함평군이 추진한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공간 무료 개방' 정책이 입장객 급증으로 이어지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자연생태공원 야외공간을 무료로 개방한 결과 5월 한달간 공원 입장객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사·파충류생태공원을 포함한 전체 방문객 수 역시 1만1천363명에서 1만4천757명으로 약 30%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무료 개방 조치는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 공원을 열린 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 이후 비용 부담으로 방문을 망설였던 지역 주민은 물론,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함평엑스포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대감도 커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방문객 증가 추세를 꼼꼼히 분석하고, 안내 기능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연생태공원을 서남권 최고의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택근 산림공원과장은 "무료 개방은 단순히 입장료를 면제하는 차원을 넘어 모두에게 열린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굵직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이용객 중심의 시설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강진 다산명가 '전복볶음고추장' 국제 우수 미각상

### 벨기에 국제식품료품평회 3스타 획득

강진군 대표 농식품 기업인 다산명가의 '전복볶음고추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미각 무대에서 압도적인 맛을 인정받으며 K-푸드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산명가는 최근 벨기에 국제식품료품평회(ITI)이 주관한 '2026년 국제식품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획득해 '국제 우수 미각상(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 평가는 20개국 이상에서 선발된 250여명의 글로벌 셰프와 소믈리에가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복볶음고추장(사진)은 전복 특유의 짭짤한 식감 및 풍부한 향미와 전통 고추장의 깊은 감칠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3년 프랑스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노미' 대상에 이은 또 한번의 낭보로,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에 꾸준히 입점해 온 다산명가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령에 다산명가 대표는 "가문의 전통 비법이 담긴 장류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산 정약용의 철학이 깃든 건강한 발효식품 개발에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 농식품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든든한 성장 기반 구축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 영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대응키트 전달

영광군은 14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키트를 전달하며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농업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폭염 대비 요령을 안내하고 생수, 모자, 식용포도당, 쿨링패드 등으로 구성된 폭염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낮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시간 준수,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등 고용주에게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반자"라며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폭염 대응 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근무환경 점검 등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2곳 확대 운영

### 영암·삼호읍서 오후 11시까지

영암군보건소가 심야 시간대 군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존 영암읍 푸른약국에 이어 올해 삼호읍 보람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해당 약국에서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운영되며, 약사가 상주하며 의약품 판매는 물론 복약지도와 방문·전화 상담 등 전문

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영암군에는 푸른약국과 보람약국 등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은 야간과 휴일에도 군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통해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이 아닌 지역 내 약국에서 신속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